

PVC벽지, 종이벽지 대체 가속화

95년 9.4% 증가 1만4000톤 전망 ... 종이벽지 점유율 하락세

국내 벽지시장에서 PVC벽지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80년대 후반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아파트 건축의 증가와 건축물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PVC벽지가 기존 종이벽지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벽지시장은 94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이중 PVC벽지가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종이벽지가 45%, 기타 5%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벽지 판매현황(1994)(단위 : 억원, %)

구 분	1994	1995(추정)	점유율
대 동 벽 지	510	585	26.6
서 울 벽 지	210	216	9.8
대 우	200	180	8.2
L G 화 학	180	257	11.7
개 나 리	150	154	7.0
기 타	750	808	36.7
합 계	2,000	2,200	100.0

국내 벽지 생산기업은 대동벽지를 비롯해 LG화학·서울벽지·대우·개나리 등 100여개 기업이 있으며 상위 20여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별로는 대동벽지가 510억원의 매출을 기록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그 뒤를 서울벽지와 LG화학·대우·개나리 벽지 등이 추격하고 있다.

특히 LG화학의 경우 자체 원료와 로타리 스크린공법을 이용해 고급비닐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며 고급비

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VC벽지용 레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94년 1만2800톤으로 93년 1만1400톤에 비해 12.1% 증가했으며, 95년에는 9.4% 증가한 1만4000여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벽지는 재질별로 종이·PVC·실크·마 등이 있으며, PVC벽지는 일반용벽지·비닐실크벽지·고급비닐벽지 등으로 나뉜다.

이중 PVC벽지는 실크벽지가 55%, 일반벽지가 35%, 고급비닐벽지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벽지의 비중은 점차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벽지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실크비닐벽지의 상승세와 고급비닐벽지의 견조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 국내 가공기술의 발달과 제품 고급화에 따라 고가로 판매되던 수입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품은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고급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산에 비해 2~3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내 벽지시장은 주택건설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요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전체 시장규모는 정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크비닐벽지와 고급비닐벽지 등 고급벽지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6/19>